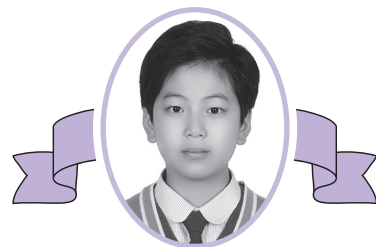


동상





나의 비밀의 정원 '도동서원'



이주오 | 대구 영신초등학교 5학년

올해 우리 가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10곳을 가보기로 계획을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여행이 힘들어져 조금 주춤해진 가을부터 전국 서원을 돌아다니기로 했다.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을 가보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자주 놀러가던 도동서원이 작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만 다른 서원도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도동서원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달성군은 우리 아빠의 고향이라 걸음마 할 때부터 공원처럼 쉬다오는 곳이었다.

그곳에 가면 입구에 너무 커서 안을 수도 없는 은행나무 한그루가 있다. 어릴 적에는 그 나무에 매달려보기도 하고 은행나무 옆에서 숨바꼭질도 하면서 막 뛰어 놀았다. 지금 처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둥이 없을 때에는 나무가 놀이터였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은행나무는 40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나무 중에서

도 진정한 할아버지 나무였던 것이다.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기울어져 기둥으로 받쳐진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다. 나무를 지나 입구를 올라가면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수월루’라는 문이 나온다. 이 문을 지나서 환주문을 지나면 커다란 중정당이 나온다. 중정당은 옛날 학생들이 공부하던 곳인데 여기 툇마루에 앉아 멀리 앞을 보면 낙동강이 흐르고 그 뒤로 산이 둘러 쌓여있다. 이 풍경을 보면서 아빠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낙동강이 흐르는 멋진 풍경을 보면서 글을 읽으면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이번에 국토사랑 글짓기를 쓰면서 나만 알고 있던 비밀의 정원 같은 이곳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알던 이 비밀의 장소가 잘 보존되어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다. 우리 아빠가 놀이터처럼 나를 데리고 가준 것처럼 나도 그러고 싶다.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도동서원은 가을이 더 깊어질 때쯤 은행나무 잎들로 더 노랗게 물들 것이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멋진 풍경을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좋은 서원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서원여행은 엄마의 고향인 영주 ‘소수서원’으로 가보기로 했다. 서원은 모두 경치가 뛰어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아 나도 멋진 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비밀의 정원 ‘도동서원’을 소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